



베이징올림픽 D-2



백지란 통신원의 지금 베이징에선

테러 공포에 휩싸인 개막식 불꽃놀이 20분 초비상 대기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분위기가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 4일 터진 폭탄테러 탓이다. 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지난 4일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증부도시 카스(喀什·카슈가르)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해 무장경찰 16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이 사건은 최근 톈진(天津) 등 중국 각지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베이징을 앞둔 중국 공안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사실 중국 공안 당국은 올림픽을 앞두고 안전에 모든 것을 걸었다. 11만 명의 무장경찰과 3만 4천 명의 인민해방군을 수도에 집결시켰다. 각각의 공안도 베이징으로 차출했다. 50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공안보조업무에 투입했다. 시내 곳곳에는 실탄이 장전된 기관총으로 무장한 무장경찰들이 순찰을 돈다. 경기장 주변은 24시간 무장경비구역으로 변했다. 야간의 경우 공안보조요원들이 주요 교각 아래 배치돼 밤샘 경비를 한다. 테러세력이 외국 정상 등 VIP와 선수단이 통과하는 주요 교각에 야음을 통해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경기장 주변엔 홍치(紅旗) 7호 지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미사일 부대까지 배치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특색이 생겼다. 지방 병력이 베이징으로 풀리면서 지방 방어망이 허술해졌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졌다. 이 틈을 비집고 발생한 사건이 이번 신장테러일 가능성이 크다. 공안 당국이 민감한 지방지역에 대한 재점검에 나선 이유다. 문제는 개막식이다. 개막식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막식이 벌어지는 주경기장 내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외국 정상들이 운집하는 최대 보안지역인 만큼 모든 검색이 철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첫째, 개막식 날 전국 각지에서 동시 테러와 시위가 터지는 경우다. 만일, 신장 내 무장독립세력과 티베트(西藏)자치구의 승려들이 손을 잡는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 경우 개막식의 축제 분위기는 빛이 바랄 수밖에 없다. 둘째, 개막식 당일 주경기장 주변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다. 개막식은 역사상 최대규모의 불꽃놀이 축제다. 불꽃은 약 20분간, 무려 3.5km의 구간에서 진행된다. 소음과 광채가 대단할 것이 틀림없다. 바로 이 순간, 경기장 주변에서 폭탄이 터진다면 수많은 인파는 불꽃놀이 소음으로 착각하고 박수를 칠 수 있다. 피신할 생각을 할 리 만무하다. 만일 화생방 폭탄일 경우 피해는 견줄 수 없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베이징 내 외교 소식통이 전한 공안 당국의 걱정이다. 이 소식통은 "중국 당국은 개막식이 끝날 때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개막식과 그 주변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최근 공안 당국이 발간한 '테러 시 행동요령 가이드북'을 꼭 읽어보길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jrkccm@paran.com



한국여자프로골프에서 3년째 정상을 지키고 있는 신지애가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 후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LPGA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 신지애 금의환황

“내년엔 미국서 뛰겠다”

“퍼팅 연습 집중했던 게 주효”

“올해까지는 국내 투어에 충실한 뒤 내년엔 미국 무대로 나사겠다.” 한국여자프로골프에서 3년째 정상을 지키고 있는 신지애(20·하이마트)가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 트로피를 가슴에 안고 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로 브리티시여자오픈 정상에 오른 신지애는 이날 가족과 팬,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입국장을 나섰다. 신지애는 입국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승했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니 정말 내가 잘하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우승 당시를 떠올리며 “굉장히 많은 갤러리들이 있었다. 마지막 홀에 올라갈 때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참았다”며 “우승을 확정짓고 나니 머리 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기뻐했다”고 웃음을 지었다.

신지애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것에 대해 “올해 처음 나갔던 에비앙마스터스에서 퍼팅이 좋지 않아 고생했다”며 “그 때 이후로 브리티시여자오픈까지 퍼팅을 집중적으로 연습했다. 덕분에 퍼팅 감각이 좋아져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LPGA 투어 카드에 손에 쥔 신지애는 “부모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과 내년 일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원래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다”고 미국 무대에 집중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어 “연말까지 LPGA 투어에 큰 대회가 몇 개 남아있고 나 역시 그 경기에 참가하고 싶다”며 “일단 국내 무대에서 1위 자리를 지켜 대상을 받는 게 목표다. 국내 투어에 주력하면서 기회가 되면 LPGA 투어 대회도 참가하겠다. 내년엔 미국에 갈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국내에서 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신지애는 “이제 LPGA 멤버에 들어가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투어에서 만난 선수들도 내년에는 1년 내내 보겠네”라고 축하해 줬다. 이제는 서로 좋은 라이벌이 됐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인 여자골프 파워 선도”

AP통신 보도

“한국이 아시아 여성들의 골프 파워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 AP 통신이 3일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브리티시오픈에서 신지애를 필두로 톱 5를 포함, 20위권 안에 15명의 아시아인이 포진한 사실을 지적하며 송고한 기사 제목이다. 골프계에 부는 아시아 우먼 파워의 바람이 거센 가운데 특히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시다는 것.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의 마지막 메이저대회라는 딱지가 붙었던 브리티시오픈이 20년 한국인 여성 신지애의 우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아시아에서 온 젊은 스타들의 또다른 공언장으로 변했다. 이 대회에 앞서 열렸던 메이저대회였던 LPGA 챔피언십과 US오픈에서는 각각 대만의 청야나와 한국의 박인비가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신지애의 우승은 미국선수들에게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뛰며 21승을 올린 신지애가 내년 시즌 LPGA 투어 카드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신지애는 우승 후 인터뷰에서 “당초 일본에서 뛸 생각이었으나 이제는 계획을 바꿔 미국에서 뛰고 싶다”고 했다. 브리티시오픈에서는 상위 16위 안에 크리스티 커와 플라 크리머 등 4명의 미국 선수가 올라 아시아 선수들에게 뭔가 보여 주긴 했으나 커가 6위에 그치는 등 우승권에는 근접하지 못했다. 첫 라운드에서 48세의 노장 쥘리 잉스터가 7언더와 65타를 몰아쳐 여자메이저 최고령 우승의 기도를 모았지만 결국 14위로 초반 반쪽 선전에 그쳤다. 잉스터는 “아시아권은 멈추지 않는다. 이제 그들 모두가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非) 아시아 출신으로서의 올 시즌 유일하게 메이저 타이틀을 갖고 있는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또한 아시아인들의 위협적인 선전에 대해 긴장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화순고 아쉬운 준우승

미추홀기 고교야구

전국대회 첫 우승을 향한 화순고의 도전이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 화순고는 5일 인천 송의야구장에서 벌어진 제 6회 미추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인천고에 5-6으로 아깝게 패해 지난 2002년 창단 후 전국대회 첫 정상의 꿈이 무산됐다. 지난해에도 미추홀기에서 인천고에 무릎을 꿇은 준우승에 머물렀던 화순고는 1년만의 설욕전에서 9회말 역전주자를 앞에 두고 고배를 마시 아쉬움이 더욱 컸다. 선취점은 화순고의 몫이었다. 1회말 1사에서 김선현이 2루타를 치고 나간 후 신진호의 적시타 때 홈을 밟으며 선취점을 올렸다. 그러나 4회 아쉬운 내야 수비가 나오면서 1-2로 승부가 뒤집어 진후, 5회와 7회에 도

인천고의 공세에 밀리면서 실점을 허용해 2-6까지 점수가 벌어졌다. 8회 선두타자 최성락의 중전안타를 발판으로 1점을 따라간 화순고는 9회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3-6으로 뒤지던 9회, 1사 1루에서 3번 신성호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경기가 그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4번 신진호의 안타에 이어 최성락의 싹쓸이 2루타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5-6까지 따라붙었다. 구경석이 좌전 안타를 치고 나간 뒤 도루에 성공하면서 2사 2·3루, 안타 하나만 동점인 물론 끝내기 역전 주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격수 쪽으로 가는 깊은 타구 때 타자 최진선이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는 투혼을 펼치지만 1루심은 아웃을 선언했고 화순고는 창단 6년만의 전국대회 우승을 또다시 눈앞에서 놓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6일(수)

▲2008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 : 요코하마)(17 : 45·SBS스포츠) 7일(목) ▲프리미어리그 프리시온(허더스필드 타운 : 아스널)(03 : 00·MBC espn)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수원지구 건물임대 1층 330㎡ 분할가능 편의점/이동통신/약국/인정점/호프전문점/점담점포와 보도블록 300㎡ 이상

금보부동산컨설팅 ▶쌍팔매매 ▶원룸부지매매 ▶건물매매 ▶고시원 및 원룸주택매매 ▶주유소매매

생계형, 음식, 오프, 포차구이 전문 컨설팅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서구 매입동 보증금 5천만원 월1백4십만 ▶서구 화정동 보증금 1천2백만 월5십만

법원경매 전문회사 ▶근로주택 ▶주택 ▶아파트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수원지구 상업용지 ▶건물매매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